

#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는 통합특별시 만든다

### 전남광주 장애인정책 타운홀미팅 추진위, 행사 진행 노동권·돌봄 우선 과제로 정책·권리 보장 방안 논의

전남광주 장애인정책 타운홀미팅 추진위원회는 최근 전남 나주시 중흥골드스파&리조트 백두홀에서 '전남광주 장애인정책 타운홀미팅-장애인도 함께 살아가는 통합특별시'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단체·기관 종사자, 활동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과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요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속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참가자들은 이동권·접근성, 탈시설·자립생활, 노동권 등 10개 정책 테이블에서 현장의 차별과 불편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컨트롤 타워 구축, 자립정착금 현실화, 권리중심 일자리 법제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확충, 뇌병변 중북발달장애인을 위한 낮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복합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참가자 전체 투표를 통해 선정된 통합특별시 장애인 정책 우선순위는 1순위 노동권, 2순위 탈시설·자립, 3순위 활동지원·돌봄으로 나타났다.

장상습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는 "이번 타운홀미팅은 장애인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주체임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며 "전남광주 장애계가 함께 마련한 정책 요구안이 지방선거 공약과 지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남광주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정리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정책협약 및 정책 반영 여부 모니터링 활동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대국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광주 장애인정책 타운홀미팅 추진위원회는 최근 전남 나주시 중흥골드스파&리조트 백두홀에서 '전남광주 장애인정책 타운홀미팅-장애인도 함께 살아가는 통합특별시'를 개최했다.

## 광주TP, 박승준 정책기획본부장 임명

광주테크노파크는 박승준 정책기획본부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TP 정책기획본부는 지역특화산업진흥계획과 지역대표산업 정책 수립,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규제자유특구 기획 등 지역 산업정책 기획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 조사·분석, 산업정보 유통, 거점기능지원사업 정책기획 플랫폼 운영, 기관 경영전략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성과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박승준 신임 정책기획본부장은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소재공정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지냈으며,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연구교수와 산업기술정책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산업혁신과 제조공정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 및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

박승준 정책기획본부장은 "광주TP가 지역 산업혁신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과 기업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주테크노파크가 최근 박승준 정책기획본부장(오른쪽)을 신규 임명했다.

## 조선간호대, '나이팅게일 나눔' 장학 증서 수여식

###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모아 장학금 전달

조선간호대학교는 지난 19일 총장실에서 교내 환경미화원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재학생에게 전달하는 '나이팅게일 나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이른 새벽부터 캠퍼스를 정결하게 관리해 온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모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을 대학 발전 기금으로 기부해 마련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수여식에는 장학금 수혜 학생과 환경미화 반장, 박명희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해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나이팅게일 나눔 장학금'은 간호학과 3학년 이수진 학생에게 전달됐다. 이 학생은 평소 성실한 학업 태도와 책임감이



조선간호대학교는 지난 19일 총장실에서 교내 환경미화원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재학생에게 전달하는 '나이팅게일 나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는 학교생활로 주변의 모범이 돼 왔으며, 학업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봉사 정신이 갖춘 예비 간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복남 환경미화원 반장은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큰 힘이 난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이수진 학생은 "누군가의 뜻과 정성으로 마련된 소중한 장학금이리라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며 "받은 마음을 잊지 않고 환자와 사회에 따뜻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되돌려 드려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은수 기자 joinsu@

## KT&G, 시각장애인 시설 개선 지원금 '쾌척'

### 광주 영광원에 500만원 기탁

KT&G 전남제주본부는 20일 광주 영광원에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KT&G의 '상상펀드' 기금으로 마련됐다. 후원금은 시각장애인의 생활 만족도 증진과 안정적인 공간환경 제공을 위한 거주시설 노후 벽지 교체에 활용될 예정이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형태로 운영되며 국



KT&G 전남제주본부 상생펀드 후원금 5,000,000 원 기탁식 모습이다.

내외 소외계층 지원과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김만수 본부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쾌척하고 위생적인 거주시설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국 기자

## 고흥군·홍양농협, 지역 농산물 브랜드 홍보 매진

### 제주시·서귀포농협과 고흥쌀 판매촉진 행사 진행

고흥군과 홍양농협은 최근 제주에서 고흥쌀 판매촉진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농산물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고흥쌀의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제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지역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 2023년 제주지역 농협과 농수산물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

력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주지역에 공급된 고흥쌀은 총 629t에 이르며, 연말까지 300t 추가 공급을 목표로 소비 촉진과 유통 확대에 힘쓰고 있다.

행사 기간에는 고흥쌀 증정 이벤트가 열려 제주도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현장에서는 고흥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군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



고흥군과 홍양농협은 최근 제주에서 고흥쌀 판매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으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제주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고흥쌀의 우수성

을 소개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농협과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게시판

**결론** ▲김종원·정연옥씨 장애 영진군, 채화석(광주상공회회소 상근부회장)·박순복씨 장녀 지우양=23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농성동 더 시그너스 웨딩.

**일림** ▲일가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람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니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은세 (음력 4월 5일)

- |  |   |  |
|--|---|--|
| <p>48년생 주변사람이 내 호주머니를 노린다</p> <p>60년생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라</p> <p>72년생 잔치에 가는 일을 삼가라</p> <p>84년생 기회가 왔으니 꼭 잡아라</p> <p>96년생 성급한 행동은 안 하는 것만 못 하다</p> | <p>49년생 주변에서 시기 질투 하니 주의하라</p> <p>61년생 근본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할 수 있다</p> <p>73년생 변화의 폭이 클 것이다</p> <p>85년생 가족이 불러날 좋은 운이라</p> <p>97년생 일은 욕심이 있어야 배운다</p> | <p>50년생 구매를 과감히 벗어던져서 새로워진다</p> <p>62년생 준비한 것을 시의 적절하게 쓰게 된다</p> <p>74년생 그 일은 힘안으로는 역부족이다</p> <p>86년생 충고 듣지 않고 조언에도 무관심한 날</p> <p>98년생 남자 문제에 주의하라</p> |
| <p>51년생 집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p> <p>63년생 사업상의 많은 이익이 생긴다</p> <p>75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p> <p>87년생 처리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나타난다</p> <p>99년생 끈기와 노력이 절실하다</p>       | <p>52년생 그 약속이 절대 이행되지 않는다</p> <p>64년생 주변 사람들과 서둘러 화해하라</p> <p>76년생 원래부터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p> <p>88년생 몸 바쁘고 마음 바쁜 하루</p>                          | <p>53년생 자녀의 승진 또는 부당성 취득 할 운</p> <p>65년생 원거리 출장은 금물이니 미뤄라</p> <p>77년생 배를 수룩 효과 크다는 것을 알라</p> <p>89년생 다툼이 관재수로 발전 할 수도 있다</p>                           |
| <p>54년생 손조를던 일을 불투명해지는 날</p> <p>66년생 계약이 성사되는 운이라</p> <p>78년생 말을 아끼면 복이 될 것이다</p> <p>90년생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p>  | <p>55년생 집안 화목해야 재물도 늘는다</p> <p>67년생 자녀의 말썸으로 힘든 날</p> <p>79년생 속의 과점에서 깊은 결론에 이르리라</p> <p>91년생 급한 마음이 일을 그르친다</p>                                | <p>56년생 고집을 버리고 아랫사람과 대화하라</p> <p>68년생 배우자를 용서하고 감싸 줘라</p> <p>80년생 노고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p> <p>92년생 큰 업체와의 거래가 성사 될 것이다</p>                               |
| <p>57년생 과욕은 금을 적당히 잡으라</p> <p>69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p> <p>81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실행하라</p> <p>93년생 서로 다투면 이익이 없겠다</p>                                 | <p>58년생 욕심이 앞서면 실패를 하기 쉽다</p> <p>70년생 멀리 도피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p> <p>82년생 다른 것에 한눈팔지 마라</p> <p>94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될 수도 있다</p>                            | <p>59년생 말 실수 많이 하게 될 운이니 자중하라</p> <p>71년생 해왔자 별 소용 없으니 아예 포기하라</p> <p>83년생 끝맺음 만큼은 알찬 것이다</p> <p>95년생 비라는 대로 이뤄진다</p>                                  |